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회》

제1편 내용 요약

- 전도관의 박태선님과 승리제단의 조희성님
-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의 상관관계
- 엄마, 영모님
- 박태선 영모님과 조희성 구세주님
- 금목합운(金木合運)하여 지상선국(地上仙國)창건이라

二.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의 상관관계

지난호에서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의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았다. 그리고 두 분은 동서양의 예언서에서 매우 존귀한 분으로 예언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영모(靈母)와 아들(靈子)이다. 두 분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은 실로 난해한 문제를 풀어 귀한 해답을 얻는 것과 같다.

1) 이사야 7장 14절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사 7:14~15).”

이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목청을 높여 말할 때 잘 쓰는 성경 구절로써 구세주인 예수는 낱 때부터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핵심 구절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구세주도 태어나실 때에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알 수가 있다. 즉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내용은 죄인으로 태어난 구세주가 자기를 짓어기는 도를 닦아 악을 버리고 선으로 승리하시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에 사람 몸을 입은 이상 죄의 굴레 속에 있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는 낱 때부터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靈)의 말씀이지 육(肉)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도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

2) 계시록 12장 1-6절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한 여인이 있어 해를 옷 입듯하고(계 12:1)”

“이 여인이 아이를 배어 해산할 때가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때에(계 12:2)”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계 12:3)”

“용이 해산할 여인 앞에서 해산하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삼키고저 하더니(계 12:4)”

“여인이 아이를 낳으매 곧 남자로 장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기더라(계 12:5)”

“그 여인이 도망하여 광야로 가매 하나님을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거기 있으니 1260 일 동안 그 곳에서 양육을 받으리라(묵 12:6)”

위의 성경구절 역시 영적인 말씀이다. 여기서도 이사야 7장의 말씀과 같이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뿐 아이 아버지인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사 34:16)고 하였으므로 이사야 7장의 말씀과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여인이 혼자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므로 서로 짝이 맞는 말씀이 된다.

먼저 첫 구절에서 “해를 옷 입듯 했다”는 것은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두번째로 “이 여인이 아이를 배어 해산할 때가 되매 아파서 부르짖을 때” 했는데 이 말씀 역시 영적인 말씀으로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영적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다.

“용이 있어 해산할 여인 앞에서 해산하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삼키고저 하더니”한 것은 하나님이 구세주를 해산하려고 하시니 용 마귀가 그 구세주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며,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곧 남자라 장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

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도망하여 광야로 가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예비한 곳에서 양육을 받으니”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보내어, 즉 밀실(密室)에 숨겨서 키운다는 것이다.

위의 성경구절을 상고한 바와 같이 구세주라는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 몸을 입었다는 것은 죄의 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죄의 탈을 벗어야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영적 엄마)이 아들(靈子)을 예비한 곳인 밀실(密室)로 보내 인간의 탈을 쓰게 한 원죄인 ‘나’를 죽여 없애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니 그 아들(靈子)이 구세주로서 완성이 된다고 한 것이다.

3) 시편 2편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 내가 가라사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네게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시편 2:7-9).”

이 말씀도 역시 영적인 말씀이다.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영적인 어머니 하나님이 영적인 아들 구세주를 낳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구세주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전 세

계의 열방과 모든 소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질그릇을 깨는 것같이 부수리라고 하셨다.

4)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나중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같이 하리니(계 2: 26-27)”

위에서 살펴 본 이사야서 7장, 계시록 12장, 시편 2편의 구절은 처녀·여인·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에는 처음으로 <이긴자>란 표현을 사용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주신다”고 했고 또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이 낳은 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주신다”고 하였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사 34:16)고 하였으니 ‘여인이 낳은 아들’과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다 ‘이긴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와 같이 연결하니 이기신 하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죽음의 신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구세주님은 인류로 하여금 사망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다.

위의 설명한 내용을 통하여 아들을 낳은 여인은 박태선님이고 여인이 낳은 아들은 조희성님임을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차렸을 것이다.

三. 엄마, 영모님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성경구절은 분명 구세주에 대한 예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낳은 아들 예수를 지칭하는 예언이라고 육적(肉의)인 해석을 하는 기독교 교리의 오류가 분명 밝혀져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靈的)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앞에서는 성경 구절을 들어 예수가 구세주가 아님을 설명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선각자 중 한 분인 남사고(南史古) 선생의 격암유록을 중심으로 구세주의 출현 모습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남사고 선생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최고의 선각자로서 전 세계 유명 예언자 중에서도 최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사고 선생의 어록(語錄)을 중심으로 이 엄청난 숨겨진 비밀을 정확하게 파헤쳐서 참 구세주의 본체를 정확하게 만천하에 드러내 보일겠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족 종교를 표방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인데, 더욱이 민족종교인들은 다들 하나같이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가 ‘소울음소리 나는 곳’의 본고장이라고 주장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그들에 게도 ‘소 울음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1) 박태선님의 발자취

박태선님은 1956년에 서울 원효로에 이만제단을 건축하고 1957년에 소사제1신앙촌을 건설하고 1962년에 덕소제2신앙촌을 건설하고 또 1970년에 가장 제3신앙촌을 건설하였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신앙 혁명을 일으킨 박태선님은 평범한 종교부흥사일 뿐인가! 그런데 박태선님이 전개한 종교 활동 가운데에는 평범한 신앙부흥사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전도관의 외형적 성과와는 무관한 듯 보이는 박태선님의 종교 활동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박태선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종교적 사명은 무엇인가?

박태선님의 전도관 역사(役事)가 날로 번창하여 무려 150만 명에 이르는 교세를 갖게 되었을 때 한편에서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느닷없이 박태선님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보통 ‘갸람!나무 장로님!’으로 호칭되던 박태선님을 갑자기 ‘엄마’라는 호칭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박태선님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엄마’라는 호칭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세상에 이처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경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어디서나 박태선님이 보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가곤 하였다.

박태선님은 처음에는 당황해 하시면서 “주책 좀 작작 부려!” 하고 야단을 치곤 하셨다. 그러나 박태선님이 야무리 야단을 쳐도 이 ‘엄마’라는 호칭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더 맹렬히 전국 방방곡곡으로 울려 퍼졌다. 결국 박태선님도 당신 스스로를 “이 엄마가” 하시면서 ‘엄마’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셨다. 이후부터 박태선님은 당신이 ‘엄마’라고 자칭(自稱)하셨다. 더욱이 박태선님은 “이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다.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엄마’라면 잉태하여 해산하는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신령한 도의 뜻을 먹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키우니 ‘엄마’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다.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엄마’라면 잉태하여 해산하는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신령한 도의 뜻을 먹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키우니 ‘엄마’라고 생각하였다.

먼저 격암유록을 살펴보자. 격암유록에는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의 실체

가 밝혀져 있다.

2) 엄마소리와 소울음소리

三神山下牛鳴地 牛聲狼藉始出天民
삼신산하우명지 우성낭자시출천민
「世論時(세론시)」

삼신산 아래에 소 울음소리가 나는 땅이 있다. 소 울음소리로 낳자한 이곳이 하늘의 백성이 처음 출현하는 곳이다.

해설 : 삼신(三神)이 계신 곳 즉 소래(蘇來)산과 노고(老姑)산 사이에 있는 소사 범박동과 계수동에 제1신앙촌인 ‘소사 신앙촌’을 건설하시고 그 곳으로 전국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열성 교인들이 속속 입주하기 시작하니 소사 신앙촌은 ‘엄마’ 소리로 전지가 진동할 정도였다. 바로 이곳이 하늘의 백성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장소라고 남사고(南師古) 선생은 기록해 놓고 있다.

一心合力全家族이 弓乙村을 찾아보소
일심합력전가족 궁울촌
牛聲之村見不牛로 人言一大尺
우성지촌견불우 인언일대척
八村을 恨心하다 草路人生 弓乙村을 팔촌 한심 초로인생 궁울촌
모르거든 呼天村을 先尋後에 호천촌 선심후

위진 전도관을 통해서 박태선님을 부르는 ‘엄마’소리가 안 나는 곳이 없다는 내용이다.

牛聲在野晩魯聲中 非雲眞牛喜消息에
우성재야엄마성중 비운진우희소식
牛聲在野十勝處엔 牛鳴聲이
우성재야 십승처 우명성
狼藉하고
낭자 「歌辭總論(가사총론)」

소 울음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지는데 이 소리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이다.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속에 구름이 없는데도 진리의 비가 쏟아져 내리는 희소식이 있다. 소 울음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지는 십승처엔 ‘엄마’라고 부르는 소 울음소리가 낭자하고….

해설 : 소 울음소리가 들판에 짹 깔려서 울려 퍼지는데 이 소리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곳 ‘엄마’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구름 한 점 없는 속에 진리의 비 즉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늘의 백성이 출현하는 최고의 희소식이 있는 곳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소 울음소리로 표현되는 ‘엄마’라고 불린 박태선님의 예정된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3) 소 울음소리의 실체인 박태선 영모님

영모(靈母)님! 영의 엄마란 뜻이다. 그 분을 ‘엄마, 엄마’하고 부르며 따르던 무리들이 소사 신앙촌이 건설되고 5만제단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서 돌연 ‘엄마’란 호칭(呼稱)이 ‘영모(靈母)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엄마’라는 호칭이 점잖지 않고 해서 영적인 ‘엄마’라는 뜻으로 ‘영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박태선님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다. 즉 ‘박태선 엄마’는 인류의 구세주요, 생

미륵부처님이요, 정도령님 되는 한 분을 해산의 수고 끝에 영적으로 낳아 키워 출현시키시는 아주 특별한 ‘엄마’이신 것이다. 그분의 전도관 역사와 신앙촌의 역사는 오직 한 분 구세주 정도령님을 낳아(찾아) 키워 출현시키시기 위한 역사이다.

박태선 영모님은 구세주 정도령님의 ‘엄마’로서의 사명을 성공리에 완수하셨다. 당신이 입버릇처럼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던 ‘해산의 수고’ 끝에 육동자 구세주를 낳은 것이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 내가 가라사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편 2편)” “해를 옷 입 듯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매 곧 남자라(계 12장)”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사 7:14)” 이와 같이 성경상의 예언이 완벽하게 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것도 영의 말씀이다. 또한 ‘소 울음소리’의 실체는 구세주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임도 완벽하게 해명이 되었다. ‘소 울음소리 나는 곳’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어야지 추상적인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 없이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이 자기에 종교라고 목청을 높여 봐야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엄마’와 ‘소 울음소리’가 박태선 영모님의 전도관과 신앙촌 역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종교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구세주를 출현시키시기 위한 하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예정된 역사(役事)였던 것이다.

격암유록에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

“일심합력 전가족이 궁울촌을 찾아보소.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 가보니 소는 보이지가 않는구나. 바로 이곳이 신천촌 즉 신앙촌이라는 곳인데 한심하다 초로같은 인생들이, 궁울촌을 모르거든 하나님을 찾는 촌을 먼저 찾은 후에 ‘엄마’를 찾는 촌을 다시 몰아서 찾아보시오(출장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